

(주소) 1648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56 (팩스) 031-278-7035

배포일: 2025.11.2. 보도일: 2025.11.3.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2025 예술로 문화정책 베짜기」 “끼니와 나들이를 위한 베틀 어미” -현장에서 걸어 올린 문화정책의 실마리, 예술로 엮다.-	8	2	www.ggcf.kr	부 서: 직속 정책실 담 당: 임소연 전 화: 031-231-7256

2025 예술로 문화정책 베짜기 “끼니와 나들이를 위한 베틀 어미”

- ▶ 150여명의 예술가, 기획자, 정책전문가, 실무자들이 문화정책을 그린다
- ▶ 생생한 ‘아래로부터의’ 현장 언어를 씨실날실로 하여 정책의 그물코를 짓다
- ▶ 하루종일 예술의 ‘몸짓말’로 베틀을 짜는 ‘예술축제형’ 문화정책 페스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함께 공동주최로 “2025 예술로 문화정책 베짜기”를 오는 11월 7일 금요일,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동 전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관은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이다.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은 올해 8월부터 2년 간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을 겸하는데, “2025 예술로 문화정책 베짜기”는 연구소를 맡고 치루는 첫 사업이다.

이 행사는 예술가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정책은 무엇이고,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삶의 ‘나들이’를 위한 문화정책은 무엇인가를 되묻기 위해서 “끼니와 나들이를 위한 베틀 어미”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현장의 예술가·기획자·연구자·전문가·실무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양한 말들의 씨실과 날실로 ‘문화정책의 그물코’를 짜 보자는 것이 이번 ‘베짜기’의 취지다.

‘베짜기’의 방식은 기존의 포럼이나 세미나와 달리 현장의 예술가들이 여섯 개의 주제를 놓고 실제 ‘몸짓말’로 토론을 하면서 제안하는 방식이다. 한 마디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세미나의 형식을 넘어, 예술과 삶, 정책과 현장이 맞닿는 ‘살아 있는 대화의 마당’으로 기획되었다.

베틀을 짜기 위해서는 ‘잉아걸기’를 먼저 해야 한다. 잉아걸기가 된 뒤에야 씨실로 베를 짤 수 있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말로 꿰뚫어 톺아보기”는 그래서 ‘잉아걸기’의 형식이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예술 기획의 실패와 좌절을 가져오는

정책을 따져 묻는다. 이어 낮 끼니에는 ‘소풍’ 시간을 통해 도시락과 버스킹으로 참여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교육예술, 생활문화, 문화기획, 지역문화, 문화도시, 예술진흥’ 등 6개 주제별 ‘몸짓말’ 세션이 진행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자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또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을 나눈다. ‘몸짓말’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 낚시꾼’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그 대화를 엮어서 정책초안을 그린다.

이후 ‘베틀 엮기’(문화정책 그물코 그리기) 세션을 통해 분과별 논의 내용을 한데 모으고, 마지막으로 라도삼(서울연구원), 이원재(문화연대), 김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베틀 어미’ 대담에서 종합적 문화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 행사는 예술인, 기획자, 정책 관계자뿐 아니라 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11월 4일(화요일)까지 신청 QR을 통해 접수하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행사 전후로 다회용 컵과 텀블러를 지참해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행사 운영에도 함께할 수 있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경기문화재단 김종길 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부터 싱싱하게 길어 올린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 예술과 행정이 함께 정책의 그물코를 엮는 자리”라며,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문화정책의 실마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1 : 행사 개요 및 세부내용

붙임2 : 행사 포스터 이미지

붙임3 : 각 순서별 진행방식의 구체적 내용

붙임1 : 행사 개요 및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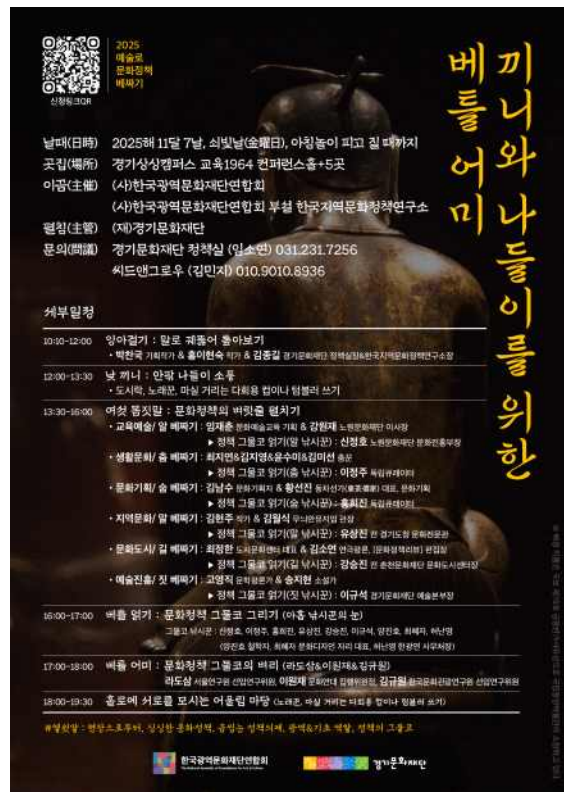
- 행사 명 : 「2025 예술로 문화정책 베짜기」 “끼니와 나들이를 위한 베틀 어미”
- 일 시 : 2025년 11월 7일(금) / 오전 10시~오후 7시 30분
- 장 소 : 경기상상캠퍼스
- 공동주최 : (재)경기문화재단,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 주 관 :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 참가대상 : 문화정책 및 예술 현장 관계자, 일반 도민 누구나
- 참가신청 : 11월 4일(화)까지 신청 QR 링크 / 현장 접수 가능

시간	진행내용
	잉아겉기 : 말로 꿰뚫어 훑아보기
10:10 ~ 12:00	· 박찬국(기획작가)&홍이현숙(작가)&김종길(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낮 끼니 : 안팎 나들이 소품
12:00 ~ 13:30	· 도시락, 노래꾼, 마실 거리는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 쓰기
	여섯 몸짓말 : 문화정책의 버릿줄 펼치기
	· 교육예술/알 베짜기 : 임재춘(문화예술교육 기획)&강원재(노원문화재단 이사장) ▶정책 그물코 엮기(알 낚시꾼) : 신정호(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장)
	· 생활문화/춤 베짜기 : 최지연&김지영&윤수미&김미선(춤꾼) ▶정책그물코 엮기(춤 낚시꾼) : 이정주(독립큐레이터)
	· 문화기획/숨 베짜기 : 김남수(문화기획자)&황선진(동차선가(東茶僊家) 대표, 문화기획) ▶정책그물코 엮기(숨 낚시꾼) : 홍희진(독립큐레이터)
13:30 ~ 16:00	· 지역문화/말 베짜기 : 김현주(작가)&김월식(무늬만뮤지엄 관장) ▶정책그물코 엮기(말 낚시꾼) : 유상진(전 경기도청 문화전문관)
	· 문화도시/길 베짜기 : 최정한(도시문화센터 대표)&김소연(연극평론, 「문화정책리뷰」편집장) ▶정책그물코 엮기(길 낚시꾼) : 강승진(전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 예술진흥/짓 베짜기 : 고영직(문화평론가)&송지현(소설가) ▶정책그물코 엮기(짓 낚시꾼) : 이규석(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장)
	베틀 엮기 : 문화정책 그물코 그리기(아홉 낚시꾼의 눈)
16:00 ~ 17:00	· 그물코 낚시꾼 : 신정호, 이정주, 홍희진, 유상진, 강승진, 이규석, 양진호(철학자), 최혜자(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허난영(한광연 사무처장)
	베틀 어미 : 문화정책 그물코의 버리(라도삼&이원재&김규원)
17:00 ~ 18:00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재(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김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홀로에 서로를 모시는 어울림 마당
18:00 ~ 19:30	· 노래꾼, 마실 거리는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 쓰기

열쇳말

현장으로부터/ 싱싱한 문화정책/ 곱씹는 정책의제/ 광역&기초의 역할/ 정책의 그물코

붙임2 : 행사 포스터 이미지



행사 포스터



신청링크 QR

신청링크 QR

붙임3 : 각 순서별 진행방식의 구체적 내용

2025 예술로 문화정책 베짜기 “끼니와 나들이를 위한 베틀 어미”

• 잉어걸기 : 말로 꿰뚫어 톺아보기

10:10~12:00 | 박찬국 기획작가 & 홍이현숙 작가 &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꿰뚫다’에서는 기획의 실패와 예술의 좌절을 가져오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따져 묻습니다. 왜 정책은 현장을 향해 있지 않고 성과와 보고와 결과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따집니다. 예술이 만들어내는 무늬는 늘 과정에 있을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 말합니다. 속이 뽕 뚫리는 문화예술정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무작정 제안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도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실무자들이 가져야 할 ‘마지노선’에 대해서도 토론합니다.

• 소풍(消風) : 낮 끼니와 나들이

- 12:00~13:30 | 도시락, 버스킹, 음료는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

낮 끼니는 건강한 도시락으로 준비합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이곳저곳 도시에서 활동하는 버스킹 연주자들과 나들이하는 시간입니다. 일회용 컵은 쓰지 않으니 텀블러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여섯 몸짓말 : 문화정책의 버릿줄

‘여섯 몸짓말’은 우리가 흔히 ‘워크숍’이라고 하는 그것인데요, 그걸 좀 새끼줄 꼬듯이 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짜기를 하시는 2명(생활문화 4명)의 전문가 선생님들은 현 상황에서의 문화예술교육(교육예술)이, 생활문화가, 문화기획이, 지역문화가, 문화도시가, 예술진흥을 말하고 토론하고 씨름하고, 그도 아니면 미래를 앞당겨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과거를 뒷당겨서 잘한 것은 무엇이고, 또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몸짓말’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각 주제별로 2시간 30분을 드리니깐, 대략 앞의 30분은 말로 톺아보기 위한 ‘멍석깔기’를 하시고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참가자’들과 실제적인 말씨름과 대안 찾기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베짜기’라고 한 것은 말의 날줄은 2명의 전문가가 하시고, 씨줄은 참가자들과 짜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정책 그물코 엮기’로 참여하시는 신정호, 이정주, 홍희진, 유상진, 강승진, 이규석 선생님은 말마당에 직접 참여하셔도 되고 뒤물러 서서 관찰만 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여섯 몸짓말’을 갈무리하여 문화예술정책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메모하셔야 합니다. ‘여섯 몸짓말’의 생짜 육성의 현장 언어라면, ‘정책 그물코 엮기’는 그 현장 언어를 ‘엮어서’ 정책으로 바꾸는 작업이지요. 그렇게 엮어서 그런 정책의 밑그림을 “베틀 엮기”에서 10분씩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최혜자, 양진호, 허난영 선생님은 어느 한 주제가 아니라, ‘여섯 몸짓말’을 전부 염탐하시면서 진행 상황을 살펴봅니다. 필요하면 ‘정책 그물코 엮기’를 하시는 6명의 ‘뉘시꾼’들과 정책으로 엮기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세 분은 최종적으로 이 행사가 끝난 후, A4 2장 정도의 총평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여섯 명의 낚시꾼이 메모한 글에 코멘트를 달아도 좋습니다. 문제는 ‘현장 언어(육성)’ ▷ ‘정책 언어의 그물’을 짚 수 있도록 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교육예술/ 알 베짜기

임재춘&강원재 선생님은 문화예술교육을 말로 터 나눕니다. 터 나눌 때, 미리 지금의 문화예술교육이 처한 문제의식이나, 미래-과거를 상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역/기초’의 역할과 연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리 두 분이 2시간 30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상의하셔서 준비하시면 아주 훌륭하고요. 문화예술교육 20주년이라는데, 무언가 콕 막힌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어떻게 바꾸고 새롭게 짜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을 풀어 주십시오.

♣ 생활문화/ 춤 베짜기

최지연&김지영&윤수미&김미선 선생님은 전문 영역의 춤이 아니라, 생활 영역에서 누구나 춤을 출 수 있는 생활문화(또는 생활예술)에 대해 말을 터 나눕니다. 직접 참가자들과 더 붙어 할 수 있는 춤을 추어도 좋습니다. 춤이야말로 ‘몸짓말’의 온통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몸짓’을 표현하는데 무언가 제약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자유로운 ‘몸짓’의 춤을 위해서 문화재단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대화도 참가자들과 ‘말나눔’ 하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기획/ 숨 베짜기

김남수&황선진 선생님은 문화기획을 말로 터 나눕니다. 두 분 모두 ‘미래과거’를 꿈꾸하시는 분들이니, 오늘 여기의 문화기획이 바꾸고 또 뒤바꾸어야 하는 ‘다시개벽’의 무늬는 무엇인지 살펴 주시지요. 참가자들과 ‘몸짓말’도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동학수련을 이끌고 계시니, 서로 함께 짧게 수련을 하셔도 좋겠군요. 일상의 문화기획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순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문화예술정책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도 살펴 주십시오.

♣ 지역문화/ 말 베짜기

김현주&김월식 선생님은 지역문화로 말을 터 나눕니다. 김현주 선생님은 <빠빨마을 프로젝트>를 해 오셨고, 김월식 선생님은 <무너만 뮤지엄>을 운영 중입니다. 모두 ‘지역’과 ‘공동체’를 살피는 일입니다. 두 분이 바라보는 ‘공동체’는 다소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주, 유목, 무너 혹은 무너만... 21세기는 마치 ‘상상의 공동체’로만 존재하는 느낌도 듭니다. 특히나 경기도가 처한 인구 1400만의 상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1946년 260만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현재 2600만을 해야합니다. 정주보다는 유동하는 인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남부와 북부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경기지역’의 정체성은 마치 아메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의 ‘지역문화진흥’은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지역문화진흥’에서만큼은 정말이이 ‘광역-기초’ 문화재단의 역할 분담이 너무나 절실히 보입니다. 지원정책도 달라야 하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두 분의 경험담이 베짜기의 씨줄 날줄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 문화도시/ 길 베짜기

최정환&김소연 선생님은 문화도시를 말로 터 나눕니다. ‘문화도시’는 이제 ‘특화된 문

화정책'도 아니고, 행정소멸 예정 도시를 구원하는 '구원 정책'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문화도시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도시가 아닌 도시들을 문화도시로 선정하고 나면, 전국은 모두 문화도시라고 홍보를 하겠지만, 그것이 문화인지, 관광인지, 아니면 그저 문화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진짜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과거, 마을마다 '뜰패'도 있고, '또랑광대'도 있었고 그저 '놀이패'도 있어서 문화는 저절로 흘렀습니다. '문화'가 스스로 흐르지 않는 도시는 억지 춘향일지 모릅니다. 올해 광명시는 마당극 축제를 벌였습니다. (재)광명문화재단+(사)한국민족극협회+광명시민이 함께 한 축제는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속 가능할까요? 문화도시를 향한 문화예술정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을 위해서 말을 더 주세요.

♣ 예술진흥/ 짓 베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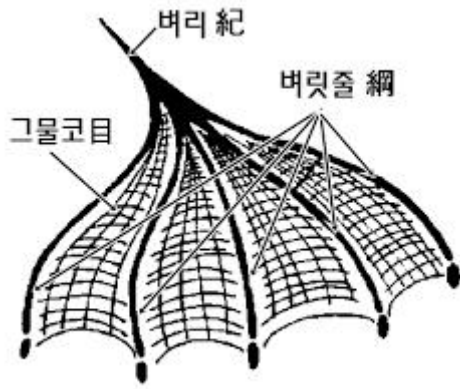
고영직&송지현 선생님은 예술진흥을 말로 더 나눕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문학관'이 없습니다. 근대든, 현대든 도립 문학관이 없지요. 필요할까요? 노벨문학상 소식은 우리 문학을 완전히 새로 보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문학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학은 수많은 예술적 상상력의 원천과도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학에 대한 지원은 아주 세밀하게-레지던스, 창작을 위한 답사/여행, 집필실 세제 혜택, 원고료 현실화, 출판지원, 낭독 공연 등등-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학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참가자들과 더불어 낭독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깜짝 놀랄만한 지원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하는 베짜기라면 아주 좋겠습니다.

• 베를 엮기 : 문화정책 그물코 그리기 | 16:00~17:00 | 아홉 낚시꾼의 눈

신정호, 이정주, 홍희진, 유상진, 강승진, 이규석 선생님은 '낚시꾼의 눈'입니다. 그 눈으로 '여섯 몸짓말'에서 내리오르는 말들의 키워드를 낚아채 주십시오. 생짜 말일지라도 어찌면 그 안에 '아래로부터 길어 올릴 문화예술정책'의 의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획이 전 문가들이 제시하는 '정책의제'가 아니라, 현장이 요구하는 '정책의제'란 무엇인지를 길어 올리고 싶습니다. 여섯 분의 '낚시꾼'은 월척을 낚아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참여도 하고, 말도 나누어 보고, 아니면 참가자들이 말하는 참뜻(眞意)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걸 메모하시고, 메모를 거칠게라도 정리해서 발표해 주셔야 합니다. 여섯 분의 눈이 이번 '베짜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섯 분의 낚시꾼들이 잡아 올린 말들을 녹취해서 자료집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 베를 어미 : 문화정책 그물코의 버리

라도삼&이원재&김규원 선생님은 '베짜기'의 최종 어미입니다. 여섯 명의 낚시꾼이 길어 올린 말들을 들으면서 '정책 의제화'하는 작업/말을 그 자리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한 마디로 이번 베를 짜기의 최종 작업은 선생님들이 여섯 낚시꾼의 말을 될 수 있는 한 가장 잘 갈무리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벼리'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물코는 ‘여섯 몸짓말’에 참여한 2명의 전문가와 참가자(15~20명 내외)들이 말로 짚니다. 그물코 눈으로 정책이 될 만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정책 그물코 엮기’에 참여한 여섯 명의 낚시꾼입니다.

벼릿줄은 양진호, 최혜자, 허난영 선생님이 나중에 문장으로 갈무리할 것입니다.

벼리는 라도삼, 이원재, 김규원 선생님이 그립니다. 세 분이 각각 20분씩 마지막 벼리 발언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여섯 낚시꾼이 길어 올린 물고기로 만듭니다. 그래야 문화정책이 아주 신선합니다. 이 또한 녹취해서 자료집에 수록합니다.